

예비자 교리 교안 6 (12 월 17 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1. 교리서에서 생략된 구약성경에 나오는 간략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 정복전쟁(여호수아) - 판관(삼손) - 사울왕 - 다윗왕 - 솔로몬왕 - 성전건축 - 남부유다와 북부이스라엘분리 - 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멸망 - 유다 바빌론에게 멸망 - 유배생활 - 페르시아에 의해 귀환 - 마케도니아(알렉산더)정복 - 헬레니즘문화권(마카베오항쟁) - 로마(뽀뽀이)정복 - 헤로데왕 과 로마총독(식민지)에 의해 통치 - 예수님 탄생

2. 예수님의 탄생(크리스마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년을 서양의 기원으로 쓰고 있지만 현대 학자들은 오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6년에서 기원 후 4년 사이에 태어 나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수님 탄생 기념일인 성탄절(크리스마스)은 기원 후 313년(종교자유) 후 기념하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로마의 태양신 기념일인 12월 25일(동지로 생각)을 성탄절로 교화시킬 목적으로 교회가 이 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가문의 본적(본가)이 있는 곳에 인구조사에 응하려고 부모가 들리셨다가 태어 나셨으며 주로 성장한 지역은 나자렛이라는 동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공생활)하신 지역은 갈릴레아호수 주변 마을들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다.

3. 대림시기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 ◆ 대림은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전 4주간을 말한다.
- ◆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면 대림시기는 교회의 기다리는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 일레로 구약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대림초 4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의 4천년을 의미한다.
- ◆ 보라색은 제 1주간, 연보라색은 제 2주간, 분홍색은 제 3주간, 흰색은 제 4주간의 촛불이다.
- ◆ 촛불은 짙은 보라에서 점차적으로 밝은 색으로 이동하여 구세주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낸다.

4.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 그리스도, 주님, 하느님의 어린양,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말씀 등의 호칭이 있다.
- ◆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란 뜻으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 ◆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는 예수님을 하느님이 세우신 임금이요, 대사제이며, 예언자란 뜻이 담겨있다.
- ◆ 주님: 하느님의 주권을 뜻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이 지니신 신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사도 바오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1 코린 8,6) 고백하였다.
- ◆ 하느님의 어린양: 이집트 탈출하여 해방될 때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다. 구원을 체험한 신앙인들은 세상의 죄악으로 부터 해방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에 '하느님의 어린양'에 비유.
- ◆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친밀함을 드러내셨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 말을 믿어라."(요한 14,9.11) 라고 말씀하신다.
- ◆ 사람의 아들: 이 호칭은 다니엘서 유래하여 "종말에 나타나 만민을 심판할 천상주권자"를 뜻하며, 종말 때 심판자로 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 ◆ 말씀(로고스): 요한복음서에서 말씀은 곧 사람 이 되신 하느님 을 뜻한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동등한 분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호칭이다.

5. 강생의 신비

교회는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인간 본성을 취하신 일을 '강생'(降生)이라고 부른다. 바오로 사도는 강생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 하셨습니다" (필리 2,5-8).86) 히브리서도 같은 신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시편 40[39],7-9 를 인용한 히브 10,5-7).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강생하셨다는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이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1 요한 4,2).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 초창기부터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신비"로 노래한 기쁨에 찬 확신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 나셨도다" (1 티모 3,16).